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었다.

나라의 일만산악을 거느린 조종의 산 백두산은 그 웅건장중한 피부리에 백설을 흘날리며 자기의 위대한 주인을 또다시 맞이한 기쁨으로 경묘한 정기를 내뿜고있었다.

산같이 쌓인 강설을 헤치시고 찾아오신 원수님을 맞이한 백두산은 눈보라치는 12월에 아직 그 누구도 올라와보지 못한 백두산정점에까지 오르신 그이앞에 만년장설을 이고 솟아있는 숭엄한 자태를 한껏 드러내며 엄동설한에 성산이 생겨 처음 보는 류달리 쾌청한 날씨를 펼치였다.

위대한 조선의 《11월대사변》을 이루시고 백두산을 찾으신 그이를 우러러 천변만화의 조화를 부린다는 천지의 호심도 천기를 다스리시는 회세의 천출명장을 모신 감격을 간직하듯 거울처럼 맑고 푸른 물결에 기기묘묘한 령봉들과 눈부신 해빛을 비끼여안고 신비로운 황홀경을 펼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장군봉마루에 거연히 서시여 억년 드눌지 않는 백두의 신념과 의지로 순간도 굴함없이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을 빛나게 실현해오신 격동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역하시며 창공을 치뚫고 높이 솟은 아아한 절벽들과 눈부시게 아득한 천리수해를 이욱



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백두산을 찾아오는 답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백두역주변에 답사자려관을 새로 잘 건설하며 백두산의 전경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여러 장소에서 사진도 찍고 휴식을 할수 있도록 편리한 시설들도 잘 꾸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천하를 굽어보는 백두산에는 이 땅에 불어오는 온갖 역풍들을 백두산바람으로 산산이 부서버리고 력사의 흐름을 정의와 진리의 한길로 주도해가시는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을 따라

도록 정겹게 바라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백두산에 자주 올라와보았지만 오늘처럼 한겨울에 봄날에 보듯 좋은 날씨는 처음이라고, 어쩌나 날씨가 맑은지 천지호반의 봉우리들이 눈앞에 가까이 다가선듯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안광에는 백두산의 장엄한 기상에서 모질게 광란하는 행성의 어지러운 바람에도 흔들림없이 푸르싱싱한 기백으로 용감무쌍히 전진하는 사회주의강대국의 모습을 안아보시는 천출위인의 숭엄한 빛발이 뜨겁게 흐르고있었다.

언제나 백전백승의 의지를 안겨주며 그 어떤 역경도 순경으로 만드는 영웅적배심을 키워주는 기적과 행운의 성산

백두산에는 무한한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오늘의 승리로 우리 혁명을 억세게 이끌어오신 천하제일명장의 전설적기상이 뜨겁게 넘쳐흘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가 깃들어있고 필승불패하는 조선의 정신적기둥이며 백절불굴하는 사상적힘의 뿌리인 백두성산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더 잘 꾸리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백두산사적비와 교양마당을 혁명의 성산의 품격에 어울리게 더 잘 꾸리며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글발을 어느 때, 어디서 보아도 가장 잘 보일수 있도록 무게있고 정중하게 더 잘 모셔야 한

나가는 영웅조선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행성에 없다는 승리의 희열이 뚫어번지고있었으며 백두의 해돋이마냥 밝고 창창한 눈부신 조선의 미래가 빛발치고있었다.

만난을 과감히 뚫고 사회주의승리의 진군로를 힘차게 열어가시는 철세의 영웅, 민족의 위대한 은인이신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흰눈덮인 12월에 백두산정에 오르시여 새기신 뜻깊은 자욱은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더 높이 떠올리실 원대한 응지와 주체조선의 앞길에 최후승리의 려명을 앞당겨오신 력사적인 행보로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제 8 차 군 수 공 업 대 회 성 대 히 진 행

제8차 군수공업대회가 12월 11일과 12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주석단에 나오시었다.

순간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 사생결단의 애국헌신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우리 조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비상히 높은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주체적국방공업발전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더쳐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은장군찬가》 주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태종수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서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결론에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서 그리고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빛나게 실현한 주체조선의 장한 영웅들에게 보내는 온 나라의 뜨거운 축하속에 제8차 군수공업대회를 전례없이 성대하게 진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온 나라 인민들의 이름으로 주체적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대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으며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승리인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 형시험발사성공을 쟁취하고 당중앙위원회의 특별초청으로 대회에 참가한 국방과학전사들의 위대한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며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었다.

아울러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가장 고결한 조국애를 지니고 주체혁명의 병기창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군수공장, 기업소, 연구소, 대학의 모든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군인들 그리고 군수생산과 보장을 맡은 단위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국방공업 부문에 복무하고있는 전체 성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었다.

빈터우에서 자립적국방공업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의 헌신과 로고를 가슴뜨겁게 회억하시면서 오늘의 대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시련에 찬 투쟁행로에서 당과 수령의 명령에 무한히 충실하였던 군수공업부문 혁명선배들의 한생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랜 력사와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의 국방공업이 그 어떤 무장장비도 자체로 만들수 있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국방공업으로 강화발전된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원자탄,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



켓 《화성-15》형을 비롯한 새로운 전략무기체계들을 개발하고 국가핵무력완성의 대업을 이룩한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쟁취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력사적승리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방력강화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고 국방공업발전에 선차적힘을 넣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전략적로선이라고 하시면서 주체적인 국방공업건설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며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보위할수 있는 강력한 국방공업을 건설하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중의 업적이라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이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확히 조직령도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강위력한 주체적국방공업에 토대하여 우리 나라의 전략적지위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선 오늘의 자랑스런 현실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관철하여온 우리 당의 결심과 선택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고 긍지높이 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위력한 주체적국방공업은 고귀한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군수공업부문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의 굴함없는 혁명정신과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이 안아온 고귀한 실체이라고 하시면서 이들을 당의 사상과 로선을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받들며 어떻게 관철하여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준 당의 믿음직한 결사대로 값높이 내세워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면서 병진로선관철을 위하여, 국가핵무력건설의 완성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온 군수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 그

리고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당의 국방공업중시로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국방공업부문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조국을 세계최강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더욱 빛내어나갈 방향을 명시하시면서 주체의 로선을 틀어쥐고 우리의 국방공업을 21세기 첨단업의 자립적국방산업으로 비약시키기 위한 전망목표와 중점목표, 전략적과업과 중대과업들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천적방도들도 명확히 밝혀주시었다.

우리의 국방공업이 지닌 중대한 사명은 국가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선도하고 적극 추동하는데 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조선로동당이 내세운 병진의 기치가 있고 영웅적군수로동계급과 당에 충실하고 재능있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있기에 주체적국방공업은 끊임없이 강화발전될것이며 우리는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승리하고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반드시 성취할것이라고 확언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수공업부문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에 대한 당과 조국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이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식의 최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 사회주의군사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며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기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의 국방공업, 자위적국방력은 상상할수없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고 우리 공화국은 세계최강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더욱 승리적으로 전진비약할것이라고 천명하시면서 한 마음한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주체적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자고 호소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연설을 마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주체조선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가시는 불세출의 위인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와 신뢰심으로 장내는 세차게 끓어번지었다.

참가자들은 우리의 국방공업을 최정에혁명공업으로 강화발전시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안겨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리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 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이 12월 12일 4.25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수여식에 참석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랑독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 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에게 우리 나라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과 공민의 최고영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낮) 및 국기훈장 제1급, 김정일상,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의 표창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표창장을 직접 수여하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을 찾고찾으시며 새형의 《화성-15》형무기체계개발과 발사 전 과정을 손잡아 이끌어주시고도 성공과 승리로 빛나는 영광의 단상에 전사들을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제8차 군수공업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12월 12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과 조국에 대한 불타는 애국충정의 마음을 안고 조국청사에 특기할 민족사적대사변인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 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을 안아온 성원들을 비롯하여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크게 공헌한 국방과학연구부문, 군수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하시이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사설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자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 철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치는 12월이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조국과 민족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겨레의 그리움은 더욱더 강렬해지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을 필생의 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 민족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의 아버지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분렬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기 위해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어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에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 한지붕아래 자주적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겨레의 모습만이 자리 잡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첫 시기부터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는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로 보시고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시어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그 단결의 위력으로 통일운동을 전진시켜 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언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령도업적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시고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는 진로를 밝혀주시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현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우리 겨레가 통일위업수행의 길에서 높이 들고 나아가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불신과 반목, 대결의 긴긴력사가 흐르던 이 땅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격동적인 환희와 사변들을 안아온 6.15자주통일시대는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헌신을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두 차례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겨레에게 안겨주시어 오래동안 굳게 닫혀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과 땅, 바다에서 통일로 가는 넓은 길을 열어주신것은 통일위업수행에서 쌓으신 특기할 업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없이 뜨거운 동포애로 평양을 찾아온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층인사들과 동포들을 친히 만나시어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로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현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우리 겨레가 통일위업수행의 길에서 높이 들고 나아가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불신과 반목, 대결의 긴긴력사가 흐르던 이 땅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격동적인 환희와 사변들을 안아온 6.15자주통일시대는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헌신을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밝혀주시면서 조국통일3대현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한 투쟁방침을 제시하여주시였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에 관한 조국통일방침은 조국통일3대현장을 관철하여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통일방략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겨레가 높이 들고나가기 위한 지침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을 이룩하시어 미국의 핵공갈과 위협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국의 안전과 민족의 평화번영을 위한 강력한 담보도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에서 우리 겨레는 민족자주통일의 밝은 앞날을 내다보고있다. 온 민족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통일애국의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높이 받들어 거족적인 통일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감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유언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3대현장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것은 민족분렬의 70여년 력사가 보여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남조선당국은 친미사대근성을 버리고 굴욕적인 대미추종정책과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하며 동족을 모해하는 수치스러운 외세공조놀음을 그만두어야 한다. 민족자주의식을 쫓먹고 민족자강력을 마비시키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은 그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외세의 분렬리간책동과 그에 편승하는 일체 행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인 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적전제이다. 미국은 핵강국의 전례에 들어선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

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칩락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무분별한 정치군사적도발과 전쟁연습을 전면중지하여야 한다.

련방제방식의 통일만이 민족을 전쟁의 위험에서 구원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순조롭게 성취하는 정당하고 유일한 길이다. 북과 남은 상대방에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체도를 인정하고 융납하는 기초우에서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련방국가를 창립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제도통일》의 허황한 꿈을 버리고 련방제방식의 통일 실현으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

겨레가 가는 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험난한 장애들이 가로놓여있지만 절세위인의 탁월한 애국의 령도가 있고 조국통일3대현장과 북남공동선언이 빛을 뿌리고 있어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온 겨레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이 땅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안아와야 할것이다.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더욱 뜨겁게 끓어넘치고있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선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자랑찬 창조물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군사적공갈과 사상최악의 제재책동을 쳐갈기며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지위에 당당히 솟구쳐오른 우리 조국의 당당한 존엄에서 이 나라 천만군민은 얼마나 위대한분을 민족의 령도자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배무로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은 위인이 아닐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심오한 사상리론과 로숙한 령도로 조국을 수호하고 빛내이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신 위인중의 위인이시이다.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어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신 장군님께서는 룡남산마루에서 다지신 조선을 빛내일 애국의 맹세를 실천하시기 위하여 한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다 바치시고 그 길에서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그이께서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시였는가 하는것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지구들레를 근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167만 4 610여리의 강행군길을 걸으신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것을 해놓아야 하겠는데 시간이 한초한초 흐르는것이 안타깝다고 하시며 이른새벽에도, 눈비가 오는 곳은 날 가림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장군님이시이다.

아버이장군님께서는 남들같은 열백번도 주저않았을 고난의 행군의 엄혹한 시련의 시

민족의 영원한 태양

기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고 불타는 애국헌신으로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을 구원하고 공화국을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닦으시였다.

우리가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다는것을 몰라서 인민군대를 찾아가는것이 아니다, 지금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조국을 지키고보아야 한다, 나라를 지켜내기만 하면 생활을 푸는것은 문제가 아니다, 망국노가 되겠는가, 자주적인민이 되겠는가, 오늘 문제는 바로 이렇게 신다고 하시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조국수호의 길에 계신 장군님이시이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철령과 오성산의 칼벼랑길, 판문점의 새벽길, 위험천만한 초도의 풍랑길과 같은 험난하고 시련에 찬 군력강화의 천만리가 있어 조국의 존엄과 안녕은 굳건히 수호될수 있었다.

외국의 한 언론이 《많지 않은 인구를 가진 나라, 세계적으로 제일 강대한 군사동맹의 위협에 직면해있고 장기간 제재를 받아온 이 나라가 누구도 감히 알볼수 없는 무력을 건설하고 유지하였으며 자체로 원자탄과 미싸일을 만들어 내어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수단을 보유하고있다. 정신력이 없고 령도자가 큰 결

단을 내리고 힘있게 내밀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그런 성과를 거둘수 없다.》고 보도한것처럼 자주강국의 역척의 지지점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준엄한 선군길이 없었다면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공화국의 불패의 군력을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그이의 결심은 곧 실천이었다. 령하 30℃를 기록하는 북방의 맹천 추위와 세찬 눈보라를 헤치시며 회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장들을 찾으시였으며 한여름의 폭양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장군님이시였다.

인민을 위해서는 돌우에도 꽃을 피우야 하고 하늘의 별이

라도 따와야 한다시며 장장 반세기이상 장군님께서 이어가신 초강도의 빨찌산식강행군,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 폭우강행군, 철야강행군의 애민헌신의 력사를 사람들은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드는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먼 앞날의 일도 아니라는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앞장에서 헤쳐가신 그이의 애국헌신에 의하여 이 땅에서는 세기적인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였다.

장군님의 로고속에 조선의 위성이 우주를 날고 주체섬유,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나라의 토지가 사회주의 조선의 땅답게 변모되는 천지

개벽이 펼쳐질수 있었다. 태고적부터 소금밭을 건설할수 없다고 하던 동해안에는 광명성제염소, 원산제염소, 어대진청년제염소와 같은 제염소들이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도 창조되였다.

부강할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시고 귀중한 자금을 아낌없이 CNC화에 돌리신 장군님의 선견지명과 용단에 의해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이 온 나라에 세차게 일어나게 되였다.

령도자로서,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온갖 고통과 만난시련을 다 겪으시며 태행수를 초불과 같이 강그리 태위 후손단체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이다.

하기에 세계의 많은 나라 당 및 국가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김정일령도자는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철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였으며 탁월한 정치가, 회세의 전략가이시였다고 높이 칭송하면서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실것이라고 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한평생 오로지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부강번영,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철세의 애국자,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이다.

오늘 백두의 기상과 슬기, 담력을 지닌 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되고있으며 조선민족의 앞길에는 보다 창창한 미래가 열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나라의 군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놀라운 기적과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나 인민의 행복 나날이 커가는 장엄한 시대와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본사기자 주 일 봉



인민을 위한 헌신의 한평생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한평생은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불같은 헌신의 한생이었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시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셨다. 평양은 물론 북변의 산골마을로부터 분계연선도시에 이르기까지 이 땅 그 어디에 가나 그이께서 이어가신 애민헌신의 자욱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개건현대화된 공장에 가보아도 그이께서 보아주신 기대가 있고 눈썹리 모자라게 아득히 펼쳐진 논밭에도 토지정리의 웅대한 구상을 현실로 이루어놓으신 그이의 비범한 령도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바치신 그이의 로고와 그 길에서 꽃피운 인민사랑의 전설들은 수백수천권의 책에도 다 담을수 없을것이다.

어느해 2월이었다.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하여 지난해말부터 몇달

동안 집에도 가지 못하고 렬차에서 생활하면서 강행군으로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고있다고, 이제는 렬차에서 생활하면서 강행군을 하는것이 습관된것 같다고, 명절날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즐기며 휴식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인민생활문제가 걱정되어 그렇게 할수 없었다고, 인민생활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언제 한번 집에 들어가 발원잠을 잘것 같지 못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명절일, 휴식일이 따로 없는 헌신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었다.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초강도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면서 그이께서는 교시하시었다.

사람이 쇠가 아닌이상 몸을 돌봐야 한다. 하지만 나에게서 몸을 돌볼사이가 없다. 나라고 왜 피곤하지 않으며 피곤하면 잠이 오지 않겠는가. 나는 피곤해도 참는다. 무슨 힘이 나로 하여금 피곤을 참고 피로와도 참아내게 하는지 아는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걸머지고있다는 높은 사명감, 우리가 일을 많이 해야 조국이 번영하고 인민이 행복해진다는 높은 책임감이 나로 하여금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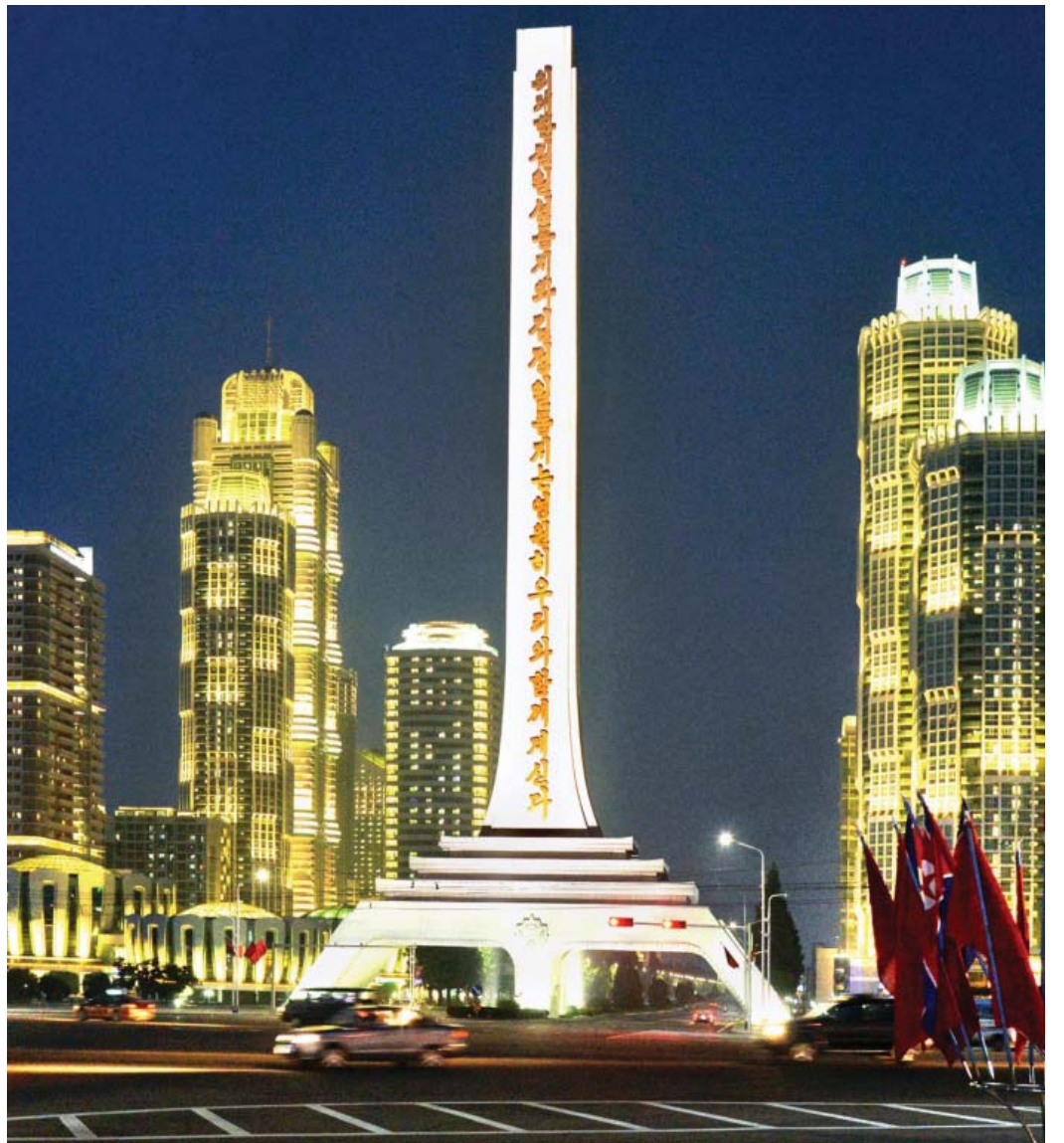
의 불길이 되어 끝없는 열정을 샘솟게 한다. 그이의 심중에는 오직 사랑하는 인민이 깎 차있었고 인민을 위한 헌신의 일념만이 맥동치고있었다.

언제인가 일군들과 의사들은 그이께 특별히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금의 몸상태로는 현지지도를 하실수 없다고 간절히 소청올리었다. 그이께서는 나는 아직 가야 할 곳이 많다고, 내가 가야 온 나라에 승리의 불길이 타번지고 인민들이 잘살수 있게 된다고 하시며 현지지도강행군길에 또다시 오르시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각에도 치료와 절대안정이 필요하여 일군들과 의사들이 그처럼 만류하였지만 현지지도를 떠나시는 그이의 앞길을 막을수 없었다. 인생이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치는 한생이라고 하시며 생신날에도 언제 한번 편히 쉬지 않으시고 한생토록 인민을 위해 고생을 락으로 여기시며 헌신의 길을 끝없이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 바치신 헌신과 로고는 천만년세월이 흐른다 해도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새겨져있을것이다.

본사기자 고성호



자주통일의 넓은 앞길을 열어주시어

애국애족의 대용단과 통일의지로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공동선언들을 마련하시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민족자주통일의 장엄한 새시대를 펼쳐 주신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시대와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영원 불멸할 업적이다.

감격도 새로운 주제89(2000)년 6월 뜨거운 동포애와 넓은 포용력으로 몸소 비행장에까지 나가시어 남측대통령일행을 따듯이 맞이하시고 속도도 찾아주시었던 절세위인의 숭고한 모습을 오늘도 겨레는 잊지 못하고있다. 평양상봉의 나날은 길지 않았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투철한 민족자주정신, 뛰어난 예지와 해박한 식견, 통큰 결단에 의해 우리 민족끼리를 진수로 하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탄생하여 온 삼천리강토와 행성을 진감시켰다.

6.15공동선언의 발표와 더불어 조선반도에는 분렬 55년동안에도 볼수 없었던 놀라운 사변들이 려이어 펼쳐졌다. 하늘길, 땅길, 바다길이 열리고 북과 남의 당국과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이 서로 래왕하며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하였으며 도처에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가 성대히 벌어져 겨레의 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켰다.

이 격동과 환희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에 온 남조선언론사대표단도 만나주시고 북남언론인들이 지난날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대결하고 불신하던 낯은 라성에서 벗어나 공동선언을 리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인민들의 의사에 맞는 언론활동을 벌려나가야 한다고 일깨워주시며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외세의

방해책동으로 북남관계가 우여곡절을 겪을 때에는 남측대통령의 특사일행도 몸소 만나주시고 북남관계가 6.15의 계도를 따라 곧바로 전진할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자위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을 방해해나서는 외세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96(2007)년 10월에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또다시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채택하도록 하여주시었다.

당시 평양상봉에 참가했던 남측의 한 장관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애초 남측대표단을 해외국민이 아닌 하나의 민족, 한집안의 손님으로 레우하시었다. 이러한 파격이 있을수 있었던것은 무엇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배려하고 위해주는 믿음과 민족을 중시하는 마음이 있었기때문이다.》라고 자기의 감동을 토로했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계층과 소속, 신앙과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주인이라는 자각과 신심을 북돋아주시어 민족성원모두가 통일위업실현에 떨쳐나서도록 하시고 북남관계와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펼쳐주시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하기에 남녘의 겨레들은 《두차례의 남북수뇌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조국통일의 확고한 리정표를 만들어내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력사적발걸음은 각계 민중들에게 영원히 기억될것입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발표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리정표를 수놓으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업적과 로고는 력사가 기억할것입니다.》라고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그이의 업적과 로고를 높이 찬양하였다.

두차례의 평양상봉으로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인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마련하시어 겨레에게 안겨주시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지금 내외반통일세력의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북남관계와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이 폭렬과 시련을 겪고 있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일유훈을 받드시어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시는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께서 계시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과 북남공동선언이 있어 자주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밝아 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시) 그리움의 꽃바다에서

김윤식

화창한 봄날에만 꽃들이 피던가
눈내리는 12월의 만수대언덕
여기엔 펼쳐졌어라
사무치는 그리움의 꽃바다,
영생축원의 다함없는 꽃물결이

활짝 핀 저 꽃들이 천송이 만송이여서
아티이는 사연들도 천가지 만가지런가
—장군님, 불빛밝은 려명거리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집니다!

—장군님, 그토록 바라시던
사과대풍, 물고기풍년을 마련했습
니다
—장군님, 온갖 심혈바치시며 념원하
시던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이 실현되었습니다!

아, 저 멀리 북변의 백두산기슭에서
최담단의 외진 섬마을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의 자랑찬 소식을
안고

장군님 못 잊어 그리는 마음들이
꽃으로 피어 오른 만수대언덕

새길수록 가슴 몽골 짓어드는
그 모든 영광과 행복 더듬을수록
장군님 심어놓으신 소중한 씨앗들
품에 안아 하나하나 꽃피워주신
원수님 생각으로 눈굽은 뜨거워 뜨거워

희세의 천출명장 만고절세의 애국자
원수님 바쳐오신 헌신과 로고속에
태어나지 않았던가

침략과 압살의 먹구름 몰아오던
원수들 전몰과 공포속에 처박으며
은 행성을 들었다놓은
《화성—15》형의 장쾌한 폭음이!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 대승리가 려이어 터져나온 이
나날
원수님 질철히 하시던 말씀이여
—장군님을 함께 모셨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군님께서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
하셨겠소?

가슴리질듯 궁지로운 승전의 보고도
언제나 장군님께 먼저 드리시고
인민의 웃음소리 나라의 경사도
장군님께 선참 아뢰시며
은 한해 장군님과 함께 계신 우리
원수님

돌우에도 눈속에 꽃을 피울
그이의 고결한 충정
하늘땅도 머리숙일 위대한 그 세계
속에
이 땅의 날과 달이 흐르고 흘렀어라
수령영생의 력사가 즐기차게 굽이
쳤어라

그래서 인민의 마음속엔
장군님 탄생하신 2월의 봄날이 깎 차
있어
사시장철 만수대엔 온갖 꽃 만발하고
이 꽃바다는 온 나라에 펼쳐졌나니

햇빛 눈부신 만수대언덕에 높이
서시여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기어이 앞당
겨울
내 조국의 밝은 미래 축복해주는
김정일장군님

오늘도 래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리움의 꽃바다우에 영생하시여라
이 세상 끝까지
아, 무궁한 세월의 한끝까지!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자!

군력강화의 길에 쌓으신 불멸의 대업적

지금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최대로 펼쳐주시고 민족의 천만년 밝은 미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새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이 성공적으로 시험발사되고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이 빛나게 이룩된 오늘의 민족사적대사변, 위대한 승리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회주의강국건설념원과 구상을 반드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안아오신 고귀한 결실이다.

일찌기 국사중의 제일국사를 군력강화로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군력강화를 위한 헌신의 발걸음을 끝없이 이어가시었다. 그 날에 공화국의 군력은 더욱 강화되고 자위의 핵태성이 지구를 뒤흔들었으며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안녕, 조선반도의 평화가 굳건히 수호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자위적 군력강화의 길에서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을 계승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국가적사업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가장 정확한 전략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위

험천만한 시험발사장들을 찾아 쉬임없이 이어가신 멀고 험한 길들과 풍랑사나운 배길들, 바람세찬 하늘길들에는 국방력강화를 위하여 온넋과 심혈을 강그리 바쳐오신 위대한 헌신의 만단사연이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국방과학자들에게 주체무기개발의 종자와 과학적발견의 착상도 띄워주시였으며 거듭되는 실패에 주저않을 때에는 국방과학의 길은 자주길, 혁명의 길이라는 혁명적신념을 심어주시면서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

대적인 믿음과 사랑은 국방과학자들이 첨단군사과학기술의 높은 고지들을 최단기간내에 점령하게 한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었다.

중중첩첩 막아서는 시련의 천만고비들을 사생결단의 의지로 강행돌파하여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눈물겨운 애국헌신과 굴함없는 공격정신에 의하여 공화국은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루지 못할 군사적적들을 불과 1~2년안에 이룩하여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의 전령에 당당히 들어설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략적결단에 의하여 단행된 두차례의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과 《3.18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11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로 하여 강력한 국방력을 바라던 우리 겨레의 오랜 숙망이 빛나게 실현되고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울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지금 미국정계와 군부의 고위인물들속에서는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자기가 하겠다고 말한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강한 지도자이며 그 누구와의 대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김정은위원장의 대응방식은 예측불가능하다.》는 아우성이 울려나오고있다. 각국의 언론들도 《미국에 핵공격을 가할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북조선》, 《오늘날 지구상에서 미제국주의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파멸시킬수 있는 나라는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이다.》라고 평하고있다.

공화국의 군대를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최악의 역경과 시련속에서 공화국을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켓을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대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인민들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자자손손 자주적이며 존엄높은 삶을 누리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민족사에 길이 빛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

백두산은 이 땅의 일만산악을 거느리고있는 조종의 산이고 민족자주위업의 뿌리가 내린 혁명의 성산이다. 하늘을 치받고 거연히 솟은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넋과 기상의 상징으로, 무궁변영하는 조선의 승리의 표대로 되고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백두산에 오르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그리는 인민들의 절절한 경모의 정이 뜨겁게 넘쳐흐르는 12월, 《11월대사변》의 경사로 온 나라가 들끓는 격동의 시기에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을 빛나게 실현해오신 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장군봉마루에 서서 아득한 천리수해를 바라보시는 그의 안광에는 백두산의 장엄한 기상에서 광란하는 행성의 어지러운 바람에도 흔들림없이 푸르싱싱한 기백으로 용감무쌍히 전진하는 사회주의강대국의 모습을 안아보시는 천출위인의 숭엄한 빛발이 뜨겁게 흐르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백두의 정신과 기상으로 력사의 온갖 광풍을 짓부시며 민족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탁월한 령도자, 백두산형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생애와 애국의 넋이 어려있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이 땅에 불어오는 온갖 반공화국압살의 역풍을 부서버리고 나라와 민족의 무궁변영할 미래를 앞당겨오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의지이다.

그이께서는 세해전 10월에도 백두산에 오르시였었다. 세찬 눈보라, 돌풍을 일으키는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시며 장군봉마루에 서신 그이께서는 백두산이 태동하면 온 나라가 태동한다고, 지금같이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맞아야 백두산의 진짜맛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혀지게 된다고 하시었다.

그날 백두산의 눈보라는 백두의 칼바람이며 백두의 기상이라고 하신 그이께서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승

고한 정신이라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살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고 하시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운명수호, 부강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께서 지니신 혁명정신, 우리 인민이 미일 두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고 나라의 자주독립과 강국건설을 위한 력사적행로에서 높이 발휘한 투쟁정신이다. 만난을 맞받아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결결한 투쟁정신인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온 나라에 더욱 나래치며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도록 하시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에 오르신것이였다.

그이께서 걸으신 백두의 행군길 따라 각계층 인민들의 백두산에로의 행군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온 나라에 백두의 정신과 기상이 더욱 힘차게 나래치고있다.

두해전 4월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이 백두산지구에 대한 답사행군을 하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지를 찾으시어 그들을 만나시고 우리모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고무격려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의 정신과 기상으로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도전과 책동을 짓부시고 강대국건설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리려는것이 공화국인민들의 불굴의 신념과 애국충정의 의지이다.

만난을 과감히 뚫고 사회주의승리의 진군로를 힘차게 열어가시는 절세의 영웅, 민족의 위대한 은인이신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흰눈덮인 12월에 백두산정에 오르시어 새기신 뜻깊은 자욱은 우리 공화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더 높이 떠올리실 원대한 웅지와 주체조선의 앞길에 최후승리의 령명을 앞당겨오신 력사적인 행보로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리설

며칠전 시내의 거리들에서는 만리마시대 자력자강의 고귀한 창조물인 새형의 트랙토르와 화물자동차들이 렬을 지어 사회주의협동농로 진출해가는 이채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길을 가던 사람들도 모두 멈추어서서 그 희한한 무쇠철마들을 바라보며 기쁨의 미소짓고 열심히 손을 흔들어주었다. 나도 그속에 끼워 손을 흔들었다.

신문과 TV에서 보았던 새형의 트랙토르와 화물차

동차들을 가까이에서 직접 보니 더욱 감흥이 컸다.

《저 트랙토르와 자동차를 원수님께서 직접 운전해보셨는지?》, 《정말 멋있구만.》, 《그래서

에로부터 사람들은 멋있게 생긴 사람, 잘난 자를 두고 미남자라고 불렀다.

잘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불리워온 미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이 만든 지하전동차도 《미남자》이다.

위대한 창조의 손길아래 련이어 새롭게 태어나

는 《미남자》들은 공화국의 힘을 더욱 강하게 하고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승리와 기적의 상징물들인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신심이 더욱 용솟음쳤다.

김철민

단상 자랑스러운 창조물들

원수님께서 트랙토르를 보시면서 미남자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미남자!

무심코 들을수 없는 말로 만든 트랙토르뿐이라.

남자가 오늘 로동당시대에 우리 로동계급이 제손으로 만든 창조품마다에 붙여지고있는것이다.

《미남자》가 어찌 새로 만든 트랙토르뿐이라.



북미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최근 공화국을 압박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살인적인 제재압박 소동과 함께 군사적 압박책동도 더욱 로골화되고 있다. 얼마전 미국이 남조선호전세력들과 함께 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한 230여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원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공중련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벌렸다는 것은 아는 사실이다. 그 폭음과 화약내가 가시지기도 전인 11일부터 12일까지 2일동안 내외호전세력들은 조선반도와 미국, 일본수역에서 공화국의 전략도미크로트공격에 대비한 《한》미일 미사일정보훈련을 벌여놓았다. 이 훈련은 내외호전세력들이 2016년 2월 공화국의 평화적인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를 그 무슨 《미사일발사》로 오도하며 거기에 대응한다는 미명하에 그 해 6월 처음으로 벌여놓았

다. 이후 호전세력들은 공화국의 《핵, 미사일위협》에 대응한다는 미명하에 이 훈련을 2016년 11월, 2017년 1월과 3월, 10월 등 그동안 5차례 실시하였다. 그 선상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미본토근해와 일본근해, 남조선수역에 배치된 이지스 구축함들이 공화국의 전략탄도탄 및 탄도미사일을 가상의 표적을 각자의 이지스 구축함들이 탐지 및 추적하고 수집한 정보를 미국정보위성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여론들은 이번 훈련이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날로 로골해지는 침략위협에 대처한 공화국의 전략적조치들을 견제하고 미국주도의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구축을 다그치기 위한 실동훈련이라고 평하고 있다. 옳은 지적이다.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무분별한 침략위협과 핵전쟁소동은 어제오늘에 와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공화국이 창건되어 지금까지 날과 달, 해를 이어 세기를 넘으면서 지속되고있는 것이 바로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위협과 전쟁소동이다. 이에 대처한 것이 주권국가로서의 공화국의 자위적인 전쟁억제력강화조치이다. 이것은 세상이면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격으로 공화국의 자위적조치들을 《도발》과 《위협》으로 묘사하면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더욱 증폭시켜왔다. 그것이 도수를 넘어 오늘에 와서는 전쟁미치광이 트럼프가 떠드는 《화염과 분노》, 《절멸》과 그에 짝자공이하면서 미호전분자들이 추종세력들과 함께 벌려놓는 사상 최대규모의 각종 전쟁연습들이 결부되면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도화선은 각각 각 타들어가고있는 것이다. 그 주들을 내세워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패권을 쥐려는 미국의 야심과 상전을 등에 업고 재침의 길을 열어보려는 왜나라 족속들의 간특한 타산,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압살하고 《흡수통일》의 어리석은 망상을 실현해보겠다는 남조선호전세력들의 흑심은 어제 오늘도 변하지 않았다. 내외호전세력들이 공화국을 없애보겠다고 지랄발광을 하지만 상대가 누구인지 아직도 잘 모르고있다. 내외호전세력들은 저들의 무모한 행동이 파멸을 재촉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열든 머리를 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사기자 김 응 철

미치광이의 발작은 더욱 큰 재앙을 초래한다

최근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으로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이룩한 공화국의 위력앞에 기절초풍한 미국이 《군사적대응》을 떠들어대며 광기를 부리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내에서는 전직, 현직 관리들과 언론, 전문가들속에서 트럼프가 실제로 공화국에 선제공격을 가할수 있다는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있어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자아내고있다. 미국방성관계자들은 다음해에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충돌이 일어날 확률을 40~50%로 보고있으며 전직 국무성관리들은 조미사이의 전쟁가능성이 그 이상이라고 평하고있다. 한편 미국언론들은 최근 트럼프가 공화당소속 미상원의원 그레이엄, 중앙정보국 장관 폼페오,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 볼튼 등 대조선선제공격을 주장하는 강경파들과 별도로 만난 사실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라크전쟁을 준비하던 당시의 부위행정부를 량상시킨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지난 대통령선

거당시 로씨야내통의혹사건으로 인한 탄핵위기에 직면한데다가 공화국의 국가핵무력완성으로 조미핵대결에서 참패의 고배를 마시게 된 막다른 처지에 빠져있다. 이러한것으로 하여 때없이 분별을 잃고 망동을 부리는 미치광이질질을 가진 트럼프가 대조선선제공격에 나설수 있다는 미국내 주장들은 한갓 억측으로만 볼수 없는것이다. 정상적인 사고와 리성이 결여된데로부터 집권후 온갖 무분별한 강권과 전횡, 폭언을 일삼고 최근에 와서는 그 세기와 회수가 더욱 높아져 국제적인 비난과 규탄을 초래하고있는 트럼프이다. 하기에 미국내부에서는 트럼프의 대조선선제공격망동은 불피고 사상초유의 핵보유국들간의 열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될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북조선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제2차 세계대전때보다 더 큰 재앙이 미본토에 들이닥칠수 있다》, 《미국, 남조선, 일본에서 최대 200만명이 사망하는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것이다》는 공포와 비난이 홍수처럼 터져나오고있다.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도 공화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지는것은 아니지

만 공화국을 강제로 비틀어 핵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만일 미국이 끝끝내 조선반도에서 한점의 불꽃을 튀긴다면 그 불길은 제일먼저 미국본토에서 치솟게 될것이며 후과는 결코 미국내부의 추축정도로 끝나지 않을것이다. 공화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던 지난날에도 조미대결력사에 수차례 패배만을 기록해온 미국이다. 미국은 오늘날 불멸의 핵보급을 튼튼히 틀어쥔 공화국을 제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보아야 하며 더이상 핵몽둥이를 손에 든 자기 힘에 대하여 과신할 필요가 없다. 지금 사상최악의 핵위협과 제재압박을 가해오는 미국의 행태를 놓고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려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의지는 천백배로 강해지고 있다. 미치광이 트럼프의 발작적인 망동은 미국에 커다란 재앙을 몰아올뿐이다. 미국은 수소탄과 미군전역에 도달할수 있는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한 조선의 전략적지위와 힘을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재앙을 초래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서 희

대결광신자의 객적은 전쟁선동

북남대결기운을 고취하는 남조선당국의 망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다. 얼마전 군부우두머리들을 청와대에 끌어들여 먹자판을 벌려놓은 남조선 집권자는 《북의 핵과 미사일위협이 빠르게 고도화, 현실화되고있는 아주 엄중한 현실과 마주하고있다》고 하면서 《북에 대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와 《확고한 대북억제력》을 떠들며 이른바 《강군건설》에 대해 력설하였다. 그러면서 군은 방위력강화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하며 이를 위해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지침》개정 후속조치와 첨단군사자산의 획득, 개발을 다그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3축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데 력량을 집중하라고 고야했다.

이것은 날로 무모해지는 남조선호전광들의 북침전쟁광기를 더욱 부추기는 전쟁선동이며 동족에 대한 적대적의식을 고취한 무모한 나발질이다. 온 한해 날로 강화되는 공화국의 군력에 짓눌려간 이 공알만 해있던자들이 《힘의 우위》와 《대북억제력》에 대해 씨부렁거린것이야말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공화국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침략적도전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조선반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수 있는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마련하였다. 공화국의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이 있어 이 땅에서 전쟁이 억제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평화가 수호되고있는것이다. 조선반도평화수호를 위한 공화국의 자위적조치

들을 길고들며 《힘의 우위》니 뭐니 하고 날치는 것은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에 질겁한자들의 히스테리적발작에 지나지 않는다. 더우기 남조선당국이 운운하는 《강군건설》이라는것도 사람들의 조소를 자아내는 맥빠진 푸념질에 불과하다. 투구 쓰고 칼을 찌다다 장수가 되는것은 아니다. 전시작전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외세의 전쟁머슴군, 전쟁대포함에 불과한 남조선군에 있어서 《강군건설》이란 한갓 오뉴월의 개꿈에 불과하다. 더구나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앞에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미사일개발》과 《한국형3축체계》 구축이라는것이 완전히 무용지물의 골동품이 되었다는것이 객관의 인식이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이 아무런 맥도 쓰지 못할 무

기체계를 꺼들며 객기를 부린것은 다 깨진 쪽박을 쓰고 날벼락을 막으려고 하는것이나 다름없다. 온 세계가 찬란하고 공인하는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달라진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아직도 전쟁미치광이 트럼프의 망언을 맹무새처럼 되받아 외우는 남조선집권자가 가소롭기 그지없다. 남조선당국이 허접스러운 상전을 믿고 아무리 발버둥질해도 달라질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저들자신을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더 깊숙이 빠져들게 할뿐이다. 남조선당국은 《전쟁만은 안된다》고 상전에게 애원할것이 아니라 미국과 야합한 각종 북침전쟁연습과 제재압박소동으로 정세를 격화시키는 자살적망동부터 걷어치워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류 현 철

얼마전 남조선 당국은 올해보다 7% 더 늘어난 357억 2700만US\$를 다음해 《국방예산》으로 책정하였다. 이것은 리명박 보수 《정권》시기인 2009년이후 군사비증가률에서 가장 높은것이라고 한다. 지금과 같이 조선반도정세가 시시각각 전쟁발발의 국면으로 치닫고있는 속에서 남조선당국이 무력증강책동에 그쳐 량 막대한 돈을 처넣으려 하는것은 스쳐보낼 문제가 아니다. 남조선당국이 《국방예산》을 대폭 늘려는것은 그 누구의 위협이 있거나 독자적인 군사작전체계를 갖추지 못했기때문이 아니라 북침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하려는데 불순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다음해 《국방예산》에 반영된 무력증강계획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2018년도 국방예산》에 따르면 《한국형 3축라격체계》구축에 올해보다 6.4% 늘어난 2조 2735억원의 자금이 할당되었다. 남조선당국은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여 미국으로부터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스텔스전투기 《F-35A》, 신형지상대공중요격미사일 《PAC-3》을 비롯한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는 한편 정찰위성, 중거리지대공미사일 《철매-2》, 탄도탄조기경보레이다 등 선제공격 무기체계를 개발 및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북의 국지도발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목밑에 230mm 다련장로켓트포와 대포병탄 지레이다, 《K-9》 자주포,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 공중급유기, 상륙기

최근 남조선에서 미국이 광주인민봉기를 진압하는데 군사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지난 7일 남조선진보운동단체인 《5.18기념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UCLA대학 도서관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0년 5월 광주인민봉기때 미국이 광주를 폭격할 계획을 세웠던 자료가 확인되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당시 미국이 전투기를 동원하여 광주를 폭격하려 한다는 소문이 미국에서도 널리 퍼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무성은 《국방성의 소관》이라고 하면서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회피하였다고 까뻐했다.

한편 지난 10월 26일에 남조선공군력사기록관리단에 보관되어있는 《5.18광주소요사태 상황전파자료》를 통해 전투환군사파쇄도당의 광주인민봉기진압작전이 개시되기 이전인 1980년 5월 25일 미군이 특수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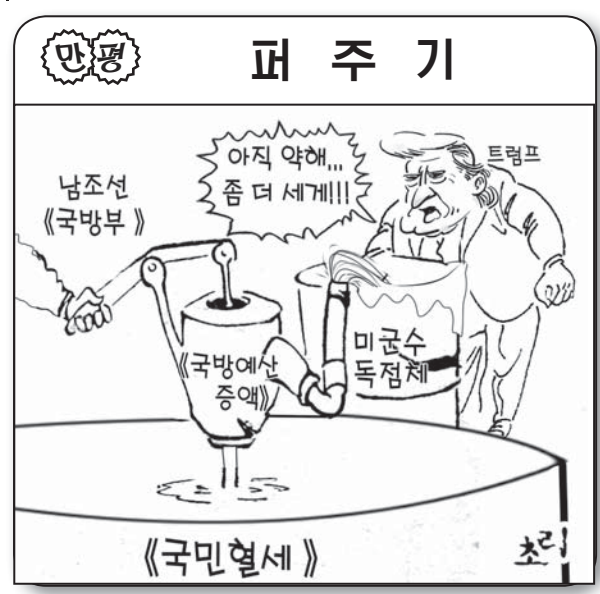
의 조기경보기 《아콰스》와 항공포함 《미드웨이》호, 《코랄씨》호 2척을 남조선주변수역에 전개하려 한 당시 미군의 작전상황도 드러났다.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사람들은 지금도 광주의

을 연출한 장본인이 바로 미국인이 드러난것이다. 군사파쇄악당들을 사촉하여 광주를 죽음의 도시로 만든것도 모자라 특수부대와 비행기, 항공포함라격탄들까지 동원하여 봉기진압을 획책한 미국의 치명리는 최악은

계속되는 한 남조선인민들은 제2, 제3의 광주참극을 면할수 없고 광주항쟁용사들의 넋원은 언제 가도 제대로 실현될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떠드는 현 남조선당국이 친미사대매국행위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광주인민봉기자들의 피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며 다시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미국의 식민지배와 군사적강점을 끝장내야 한다. 본사기자 김 련 옥

동직승기, 살상능력이 높은 《K-11》복합소총을 전력화하는데 많은 자금을 탕진하려 하고있다. 보다싶이 어느것이냐 다 북침선제공격을 위한것이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참수작전》을 담당수행할 《특수임무부대》에 필요한 예산까지 편성한것이다. 사실들은 현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광기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북침야망에 들뜬 나머지 불인지 몰리지 모르고 헤뭇미고있는 남조선당국의 대결망동이 트럼프패들의 전쟁광기를 부추기고 나아가서 남조선에 무서운 참화를 몰아오는것으로 된다는것은 더 말할필요가 없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군사적으로 공화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북침전쟁물결대로 서슴없이 나서는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이며 호전적인 정체를 다시금 낱낱이 드러내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주 광 일

늘어나는 전쟁예산



13일부터 16일까지 남조선집권자가 중국을 행각하였다. 한마디로 평하면 그의 이번 행각은 대미추종으로 초래된 대외적고립에서 벗어나려고 창피도 체면도 불구하고 반공화국제압박공조강화를 예견한 구결행각, 동족대결행각이라고 할수 있다.

행각을 앞두고 남조선당국자들은 《북핵문제의 조선반도 평화를 위한 방도를 협의》하고

《대북원유공급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요란스레 광고하면서 그 무슨 《독자제재》대상 추가지정늘음까지 벌려놓았다.

내용인즉 핵과 미사일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화국의 《불법금용거래》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이번 제재가 《북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 《미국의 추가 독자제재 발표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보조를 같이 하려 는 것》, 《국내와 국제사회에 북과의 거래위험성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 《북의 핵, 미사일개발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희뻘뻘 떠들어댔다. 얼마나 사대와 굴종이 빠속에까지 몰렸어있으면 저들의 제재늘음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헛공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부질없는 짓에 매달리겠는가 하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남조선집권자가 공화국에 제재를 가할 아무런 수단도 방법도 재력

수치스러운 구결행각

도 없는 주제에 상전의 환심을 사보려고 미국의 반공화국제재 압박소동에 적극 편승하고 있다는 냄새나 피워놓고 또 중국에 찾아가 반공화국제재에 동참해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가스롭게 놀아댄 것이다.

해의행각때마다 동족을 헐뜯고 해치기 위한 제재압박공조늘음에 매달리는 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의 고질적인 악폐이다. 그 앞장에 지금 다름아닌 남조선집권자가 서있다.

이로써 남조선집권자가 지금껏 늘어놓은 북남관계문제해결 타령이란 것이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교활한 권모술수에 지나

지 않으며 속에는 외세의 힘을 빌어서라도 어떻게 하나 동족을 모해하고 압살할 양심만 가득차 있다는 것이 나날이 더욱 드러나고있다. 미국의 침략적인 《싸드》를 끌어들이고도 그것을 한사코 북의 《핵, 미사일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라고 강변하는 것은 남조선집권자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할대로 환장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사대매국행위로 차례질 것은 굴욕과 수치뿐이다.

중국에 매달려 동족을 압박해달라고 구걸질해대는 남조선 집권자의 행태는 천안문광우에 올라 요사를 떨던 박근혜의 역겨운 꼬락서니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대세가 어떻게 흘러가고있는지도 모르고 설레발치는 남조선당국이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하다. 남조선집권자는 박근혜와 같은 비참한 운명에 처하지 않으려거든 변화된 현실을 똑바로 보고 어리석은 사대굴종늘음을 걷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김혜성

파렴치한 《인권》광대극

지난 8일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그 무슨 《토론회》라는 것을 벌여놓고 공화국을 악랄하게 헐뜯는 망동을 부리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 당》의 떨거지들과 어중이떠중이 반공화국모략군들이 참가한 《토론회》에서 이자들은 《북정권의 인권침해는 반인도적범죄다》,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유엔특별재판소설치 등 책임규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등 갖은 악담을 늘어놓았는가 하면 공화국의 핵무력강화조치들까지 《인권》문제를 결부시키며 퍼대를 두구었다.

파쑈적인 폭정으로 인민들의 초보적인 정치적권리와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남조선 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간생지옥으로 전락시킨 보수패당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에 대해 떠들어대는 것이야말로 삶은 소대거리도 웃을 일이 아닐수 없다.

정의와 진리를 주장하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종북》, 《리적》으로 몰아 박해탄압하고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을 무참히 수장시킨 것으로도 모자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까지도 《시체장사군》들로 모독하며 야수적으로 탄압한 것이 바로 보수역적패거리들이다.

그 누구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미국의 핵전쟁괴물인 《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 인민들이 대대손손 태를 묻고 살아온 생존터전을 환순간에 파괴하려는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저지르다 못해 과거 일본군성노예범죄까지 백지화해버려 민족적 분노를 촉발시킨 장본인도 역시 보수역적패거리이다. 특히 신성한 공화국 공민들을 백주에 집단타격하여 끌고가 가족들과 생리별시키고 그들의 생사여부조차 공개하지 않아 부모들의 가슴에 재를 앉히다 못해 지어 사망하게까지 만들고 돌아오겠다는 공화국 녀성주민의 앞길을 한사코 막아 선 보수패당은 《인권》이라

는 말을 함부로 입부리에 올릴 자격조차 없는 반인륜범죄자들이다.

이런자들이 일년삼백에순다섯날 단 하루도 쉴새없이 《북인권》나발을 불어대고있는 것은 저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압박책동을 합리화하고 공화국의 힘찬 전진을 막기 위한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그 무슨 《북인권결의안》 채택이라는데 가담하고 《북인권상황개선》을 떠벌이는 등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모략적인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편승해나서고있는 남조선당국도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한다.

과거 보수패당들처럼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일삼으며 분별없이 놀아낼수록 북남사이에 대결의 악순환만이 거듭된다는 것은 지나온 력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남조선당국과 보수역적패거리들은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으로 하여 초래될 파멸적후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똑바로 알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황금속



얼마전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지난 2008년에 있는 《김대중비자금조성의혹사건》을 더뜨린자가 《국민의 당》 최고위원 박주원이 라는 것을 폭로하는 기사를 실었다. 문체의 사건으로 말하면 당시 《국회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소속의원 100억원차리에금증서사본을 공개하며 《김대중비자금인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하고 검찰조사결과 그 돈이 김대중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건이다. 문체는 《한나라당》 의원에게 그 예금증서사본을 넘긴자가 박주원이라는 데 있다. 박주원으로 말하면 안철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당대표를 향해 비수를 쏘는 말에 기절했다》고 《옹호》하면서 그 대가로 최고위원자리를 차지하는 등 안철수의 턱찌꺼기를 얻어먹으며 살아온 자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김대중평화센터, 전라도 지역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김대중정신을 계승한다던 정당에서는 전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박주원이 김대중과 유가족에게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주었다.》고 격분해하면서 박주원은 물론 안철수까지 몰아대고 있다. 또 《국민의 당》 내부에서도 들고일어나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무능하고 반개혁적인 안철수를 비롯한 당지도부의 총사퇴와 새 지도부선출을 위한 임시전당대회개최까지 주장하고있으며 《바른정당》과 같은 보수진당들과 손을 잡으려는 안철수의 《중도통합론》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사태가 험악하게 번져지는데 급해난 안철수는 전라도민심을 누착해보려고 광주에 찾아가다가 지역주민들로부터 《간신배》, 《개새끼》, 《물러나라》는 지탄을 받았다. 결국 이번에 드러난 《김대중비자금조성의혹사건》은 안철수패거리들이야말로 리명박, 박근혜보수패당과 조금도 다를바없는 너절한 음모군들이고 추악한 패륜아들이며 민주개혁의 락을 쓴 위선자들이라는 것을 적라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안철수패거리들은 지난 기간에도 《불법정치자금회령의혹사건》, 《문재인아들특혜의혹조작사건》 등 부정협잡사건들을 저질러 민심의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킨 전적을 가지고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남조선민심은 안철수야말로 권력야심을 위해서는 민주개혁세력의 분열도, 보수진당들과의 결탁도 서슴지 않는 정치간상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있다. 《국민의 당》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파와 그 반대파로 갈라져 분열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뜩이나 첨예하게 대립된 두파의 갈등을 폭발직전으로 몰아가는 도화선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민심의 징벌을 면할수 없다

최근 리명박역도가 집권시기 저지른 《국정원》정치개입사건, 북남수뇌상봉대화록공개사건,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작성사건 등 불법비밀의 범죄행위들의 진상이 련일 밝혀지고 그 줄개들이 줄줄이 감옥행을 하면서 민심의 분노는 더욱 격화되고있다.

이미 남조선검찰은 적폐청산수사를 통해 보수 《정권》시기의 범죄행위들을 파헤쳐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핵심측근들을 구속, 기소하였다.

하여 남조선에서는 박근혜역도와 함께 리명박역도까지 구속하여 준엄한 심판을 내릴것을 요구하는 대중투쟁이 보수적 적폐청산운동의 주류로 되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리명박심판 범국민행동본부》,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리(명박)를 잡자 특공대》, 《MB구속개여있는 시민연합》 등을 결성하고 리명박역도구속투쟁을 전

지역적범위로 확대해나가고있으며 이에 민중당과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를 비롯한 진보정당, 단체들까지 적극 합세해나서고있다.

남조선의 반리명박투쟁단체들은 박근혜는 물론 리명박적폐세력도 몽땅 청산해야 《초불혁명》이 성공한 혁명으로 된다. 《MB부역자를 처벌하라》, 《국민을 위해 리명박을 구속하라》고 하면서 12월을 《리명박구속추구투쟁의 달》로 정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과 대구, 부산, 경기도 등 남조선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뉴욕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동시다발적인 초불집회와 시위를 단행하고있다.

《리명박역도구속추구》투쟁은 각계층의 적극적인 호응속에서 기자회견과 규탄모임, 초불행진과 서명운동, 예술공연, 《MB옹정 련속권지스기》,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 청원글쓰기, 《취잡이》 놀음 등 다

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어지고있다.

이러한 투쟁들은 사대매국과 파쑈독재, 부정협잡의 왕초인 리명박역도와 그 패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응당한 분출이다.

리명박역도야말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온갖 불법무법의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으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천하의 역적으로서 박근혜와 함께 응당 심판대에 올라 준엄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

남조선검찰의 적폐청산수사를 통해 이미 구속, 기소된 자들은 송사리에 불과하며 주되는 범죄자, 왕초는 다름아닌 청와대에 틀고앉아 범죄행위들을 직접 지시하고 주도한 리명박, 박근혜역도이다.

리명박역도가 감행한 특대형정치로범범죄가 박근혜의 집권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더 극악해짐으로써 보수집권 9년간 남

조선은 참혹한 인권불모지대, 민주주의의 폐허지대, 동족대결의 어지러운란무장으로 되어버렸다.

현실은 천미사대와 파쑈독재, 동족대결을 일삼는 리명박, 박근혜역도를 살려두면 보수적적폐청산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으며 그에 뿌리를 두고 기생 하였던 잔당들이 되살아나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지향이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리명박역도와 그 패당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적폐청산투쟁을 《정치보복》으로 매도하면서 어떻게 하나 민심의 심판을 모면하고 더러운 잔명을 유지해보려고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극력 방해하며 최후발악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민심을 거역하고 반인민적악정만을 일삼아온 역적무리들이 이 땅에서 다시는 활개치지 못하게 보수적적폐청산투쟁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퍼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최광혁

교육의 민주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투쟁

남조선에서 진보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쟁취투쟁이 각계층의 지지성원속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전교조의 주요성원들과 조합원들은 지난 4일부터 남조선 《정부》청사와 학교들에서 합법화를 요구하는 철야단식투쟁에 돌입하였으며 각 지부와 지회들에서는 일제히 전교조합법화를 위한 《총력투쟁출정식》을 진행하였다.

이에 앞서 전교조의 《해직교사》들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단식발식을 하고 청와대까지 강도 높은 항의행진을 하면서 박근혜역도가 감행한 파쑈적인 《법외로조판결》을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박근혜패당의 전교조비법화행위는 남조선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참다운 교육을 무참히 짓밟은 반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파쑈적폭거였다. 집권전부터 전교조를 《해종파도 같은 존재》, 《전교조에 아이들을 맡길수 없다》고 하면서 거리시위까지 벌렸던 박근혜패당은 권력을 쥐자마자 이 단체를 《종북의 적》, 《내부의 적》으로 몰아대면서 탄압에 광분하다 못해 나중에 《리적단체》라는 감투를 씌워 끝내 《법의로조》로 만들어버렸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은행들이 전교조와의 거래를 전면차단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받아내도록 내리먹였는가 하면 전교조의 핵심인물들을 공무원직에서 해임시키는 등 이 단체를 말살하기 위해 갖

은 박해와 탄압을 다하였다. 박근혜패당의 서슬푸른 파쑈의 칼날에 의해 자주, 민주, 통일을 요구하는 전교조와 《자주민주》 등 진보적인 단체들과 언론들의 정당한 강령과 활동이 엄중시되어 《법외로조》로 되거나 강제폐간되었다.

남조선에서 아이들의 꿈과 이상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진리의 바른길로 이끌어주려는 진보적인 교원들의 모임인 전교조를 사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학원의 민주화의 마지막 명줄이 끊기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전교조의 합법화가 박근혜패당의 종말과 함께 지체없이 실현되었어야 할 문제이지만 이른바 《초불정권》을 자처하는 현 당국은 아직까지도 우유부단

한 태도를 보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현 《정권》에 대해 《초불에 대한 배신, 력사에 대한 외면》을 벌리고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범민련, 남측본부, 진보연대를 비롯한 1700여개의 단체들도 선언문을 발표하며 합법화투쟁에 합류해나서고 있다.

남조선언론들도 《전교조 합법화문제가 각계로 확산》, 《쉽게 끝나지 않을 투쟁》, 《현 《정부》가 전교조문제로 곤경에 빠져들고있다.》고 보도하고있다.

교육자의 참된 사명과 의무를 자각하고 교육의 민주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전교조의 투쟁을 비록 시련을 겪고있지만 정의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드러난 음모군, 위선자들의 정체

곳곳마다에 꾸러진 김치봉사매대들

최근 평양의 거리거리 들에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져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시내의 곳곳마다에 꾸러진 류경김치공장의 봉사매대들에서 김치들을 봉사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얼마전 류경김치공장의 봉사매대들을 찾았던 우리는 손님들에 대한 봉사로 여념이 없는 봉사원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예로부터 조선여성들은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것과 함께 가정의 매사람들의 구미와 기호에 맞게 여러가지 김치를 담그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늙은 부모를 모시고있을 때에는 김치를 썰기 쉽게 물김치를 담그어 대접했으며 나이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는 매울세라 고 추가루를 적게 넣은 김치

를 담고있다.

류경김치공장에서는 통배추김치며 석박김치, 어린이영양김치, 총각김치 등 수십여종의 김치들을 생산하고있다.

류경김치공장의 봉사매대들에 20여종의 각종 김치들이 딱 들어차 손님들이 자기의 구미에 맞는 김치들을 봉사받고있다.

소비자들의 인기를 끄는것은 뭐니뭐니해도 통배추김치이다. 류경김치공장의 통배추김치는 정한 맛과 독특한 감칠맛으로 누구나 좋아한다고 한다.

류경김치공장의 김치들은 모두 인공색소나 화학방부제를 전혀 쓰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과 현대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식품이어서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

의학대학병원앞에 있는 류경김치봉사매대에서 우리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제품들이 폭도처럼 쏟아지는것으로 새해의 첫매대문이 열렸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안겨옵니다.

그날 민족전통음식이며 세계5대 건강식품으로 유명해진 김치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식품으로 당당히 자랑할수 있게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신 그이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 류경김치공장 종업원들은 온 한해 김치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집체적지혜와 열정을 바쳐왔습니다.

그러면서 김성금봉사원은 평양역과 봉화산려관,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주변 등 곳곳마다에 꾸러진 김치봉사매대들에서 주문 및 송달, 이동봉사를 진행하면서도 손님들의 수요를 그시그시 장악하여 공장의 생산조직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말하였다.

인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김치를 더 잘 봉사해주려는 류경김치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열의에 의하여 평양시내 곳곳에 꾸러진 김치봉사매대들은 날마다 흥성이고 있다.

보느라니 올해 1월 류경 김치공장을 돌아보시며와 만난 김성금봉사원은 많은 사람들이 《류경김치》라고 정답게 불러주며 매대를 찾고있다고 말하였다.

특히 가정부인들에게 있어서 김치봉사가 주는 기쁨은 자못 크다.

평양시 중구역 련화 2동에서 살고있는 강혜란 언니는 지난 시기 같으면 한겨울에야 맛볼수 있던 깎두기와 통배추김치 등 갖가지 김치를 겨울만이 아니라 사시절 식탁에 올려놓으니 집식구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그때마다 우리 주부들의 일손을 덜어준 류경김치공장 종업원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김치봉사를 받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사기자 김 춘 경

세계적 웃음꽃이 피어나는 집



맨팸 추위가 계속되는 한겨울이건만 온라인민원지로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다.

특히 자기의 긴 팔로 반대편 귀를 잡는 원숭이모양으로 재미있게 형상한 웃음집은 룡라곰등어관에서 회한한 곰등어와 물개들의 재주를 구경하고의레히 이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나 아이들의 손목에 이끌려 찾아오는 사람들로 언제나 흥성인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의 눈앞에 갖가지 형태의 신기한 거울들앞에서 저마끔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안겨왔다.

이 거울앞에 서면 난쟁이뚱뚱보가 되는가 했는데 저 거울앞에 가면 다리말라팽이가 되는 신기한 거울앞에서는 아이들은 물론 점잔을 빼던

어른들도 웃음을 참지 못한다.

거울앞에 서서 갑자기 키가 불쑥 커진 제 모습을 바라보며 《엄마, 나 어른됐다.》고 으쓱해하는 아이를 보다가 거울에 비친 자기들의 우습강스러운 모양을 바라보며 폭소를 터뜨리는 젊은 부부며 거울에 비쳐진 난쟁이나 길다란 모양으로 이지러진 모습을 보기 부끄러워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거울앞에 서보고는 입을 싸쥐고 웃음을 참지 못하는 청춘남녀들...

안쪽벽면에 있는 전자 거울들앞에서도 저저마다 모여서서 별의별 모양의 모습 보며 폭소를 터뜨리는 사람들과 옆에서 구경하며 웃어대는 사람들로 해서 더욱 웃음소리가 높았다.

전자거울들은 영상수감부를 통해 포착한 영상을 프로그램에 따르는 이지러짐효과로 거울앞에서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동안 수십가지의 인상변화와 몸형태변화를 직접 볼수 있게 되어있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일반적인 거울들과 달라 전자거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있었다.

남편, 아들과 함께 왔다는 김희경녀성은 《여기서 가족이 다 모여 한껏 웃고나니 쌓였던 피곤이 풀리고 기분이 상쾌해진다.》며 웃었다.

이곳 봉사원의 말에 의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것없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로 늘 흥성인다고 한다.

실로 절세위인의 한없이 숭고한 인민사랑속에 온 나라에 넘쳐나는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와 더불어 계절을 모르고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룡라민원지구의 웃음집이었다.

본사기자 김 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인민들속에서 널리 리용되어 온 우수한 민족악기들중의 하나인 저대의 제작기술이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저대는 입에 가로 대고 불게 되어있는 목관악기이다.

고구려시기에 처음으로 만들어 리용되었는데 가로부는 악기라고 하여 횡척 또는 횡적이라고도 하였다.

저대는 세나라시기,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저대 제작 방법

고려시기, 조선봉건왕조시기 등 오랜 역사적과정을 거쳐 조선민족음악의 중요한 선률악기로 되었다.

공화국에서는 민족악기를 시대적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 저대, 고음저대, 중음저대의 세가지 종류로 개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저대는 판대, 련결판, 음공, 취구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개량된 저대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참대 대신 박달나무, 흑단나무, 자단나무로 제작하는데 먼저 재료를 소재규격으로 썬 후 오래동안 자연건조시켜 제작에 리용한다.

재료가 준비된 다음에는 판대내경과 걸면각

기, 음공뚫기, 련결판과 음공뚫개의 조립, 도금, 취구가공, 도색, 연마 등 공정을 거쳐 완성한다.

《씨b》조 악기이며 음역은 《도1》—《화3》인 저대는 우아하고 처량한 민족적색채를 나타내는 중요한 악기로 우리 식의 배합관현악과 독주곡, 중주곡, 반주음악들의 연주에 쓰이면서 사람들에게 민족의 고유한 흥취와 멋을 안겨주고 있다.

본사기자

조선봉건왕조시기 량반관료이며 문인인 리항복은 다섯차례나 병조판서를 지낸적이 있었는데 1592년 임진조국전쟁시기에 특출한 공적을 세운것으로 하여 일명 《오성》대감으로도 불리었다.

그는 봉건정부에서 높은 벼슬을 한 관료였으나 부패한 정계현실을 기지와 해학으로 조소구탄한것으로 하여 후날 사람들은 그를 《임진전쟁의 7년을 웃음과 해학으로 이겨내고 귀신도 따르지 못

할 출중한 지혜를 지닌》 당대의 명망을 모은 호걸, 기발한 언변가, 기지에 넘치는 해학가로 평하였다.

리항복이 아이때였다. 소담하게 잘 여문 항복이 유모아

기발한 언변

네집 감나무가지가 이웃집 뜰안까지 뻗쳐있었는데 어느날 옥심사나운 옆집 주인이 자기 집쪽에 드리운 그 감나무에서 감을 따먹

고있었다. 항복은 그에게 왜 남의 집 감을 따먹는가 고 뻔뻔하게 들이댔다.

그러자 옆집주인이 뻔뻔스럽게 말하였다.

《우리 집 뜰안에 있는 감이야 우리것이지 너희 것이냐?》

도적이 매를 드는격이었다.

그러자 항복은 그 집 문안에 주먹을 쑥 들이밀며 큰소리로 되물었다.

《그렇다면 이 주먹이 내 주먹인가요, 그 맥 주먹이 내가요?》

단편소설

여울물소리 (1)

글 현명수, 그림 박봉혁

시내물이 지졸지졸 흘러가는 시내가에 늙은이 하나가 앉아있었다. 그는 양복바지를 허벅지까지 걷어올리고 슬관절이 툭 두드러진 바깥 마른 다리를 물위에 드리우고있었다. 머리는 은빛에 가까운 백발이었고 얼굴에는 지나간 생의 회로에락의 자취인양 실고랑같은 주름살들이 얼기설기 얽혀있었다. 맑은 물속에 정갱이까지 잠그고나서 물 건너편을 응시하는 로인의 연한 눈동자에는 떨기 나무의 그림자들이 비껴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60여년만에 처음으로 평온을 즐기는상사였다. 가을날의 태양은 수림사이를 헤치며 물을 따라 흘러내리는 시내물위에 따사로운 빛을 가림없이 뿌리고있었다. 청청한 하늘에는 목화송이같은 구름이 두어장 가벼이 띄고 미풍이 시내가의 못풀들을 살살 흔들여놓았다. 물소리는 실재없이 지졸대고 솔새의 울음소리도 두드러진 바깥 마른 다리를 물위에 드리우고있었다. 한동안 그린듯이 앉아만 있던 로인은 흠칠 놀라웠다.

그는 서서히 고개를 숙였는데 눈에 안겨든것은 발등을 쫓고 급기야 달아나는 자그마한 물고기였다. 푸른색의 등을 번뜩이는 작은 물고기를 보며 로인은 빙긋이 웃음을 지었다.

불쑥 60여년전의 일들이 머리속을 스쳤다.

그의 고향인 함경북도 부령군의 작은 산골마을로 수성천이라는 맑은 물이 감돌아흘렀다. 봄이면 노란 꽃가루가 내물우에 뽀얗게 떠돌고 가을이면 바늘같은 눈이 내리니

이 떠내려오는, 싹싹한 송진내가 바위틈속에까지 스며여있는 수성천의 여울목은 그의 소꿉시절의 놀이터였다. 이 수성천에 버들치가 좀 많았던가! 조가비처럼 웅크린 손안에서 퍼들쩍거리던 버들치, 두개의 집게발을 위엄있게 쳐들고 어기적어기적 바위틈으로 숨어들던 가재... 피침을 움켜쥐고 가랭이까지 물에 화락하니 적시며 강물에서 뛰놀았고 백사장에서 덩굴기도 하였다. 순녀, 영세, 인달이... 하고 송아지적 친구들의 이름을 입속으로 가만가만히 불러보던 로인은 《유진아!》 하는 부름소리에 흠뻑 놀라고 개를 돌렸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물이 지졸대며 흘렀고 강변의 수림이 이따금 와- 소리를 낼뿐...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착각인것이다. 하기사 일흔살을 넘긴 로인을 누가 아이때처럼 《유진아!》 하고 불러준다 말인가. 아마도 그 부름은 평생 로인의 가슴속에 맺혀진 모친의 부름소리일것이다.

《유진아!...》 하고



60여년전 그날에도 그의 모친은 수성천여울목의 부름소리에 흠뻑 놀라고 있었다.

《유진아, 우리 래일 아버지를 찾아가자꾸나. 할아버님과 할머니도 세상사를 떠났다. 이제 너의 아

버지를 찾아 일본으로 가야겠어!》

어린 유진은 어머니의 시름에 겨운 표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를 찾아간다는 말에 모두뻘뻘 하였다. 하긴 예닐곱살의 애 어린 소년이 몇마지기 되지 않던 산골짜기밭을 장례비용으로 저당

린 바지를 내리었다. 연회색양복바지의 정경이부 분이 거머져 젖어있었다. 로인은 양팔과 구두를 쥐고 일어섰다. 어느새 지팡이까지 손에 쥔 로인은 산천경계를 다시한번 둘러보고 유년시절처럼 땀발로 맑은 물이 돌돌 흘러가는 시내가를 따라 내려갔다.

이 물줄기를 따라가느라면 스위스의 오붓한 마을이 나진다. 이 마을의 구석진 귀퉁이의 수림가 사이에 크지 않은 려판이 있었다.

몇해전 우연히 이곳을 찾아왔던 유진은 수림속을 흐르는 시내물가에서 하루낮, 하루밤을 보냈다. 그 시내물이 고향의 수성천은 아니었지만 그 후로는 고향생각이 날 때면 저도 모르게 이곳을 찾게 되는 유진이었다. 따스한 해별이 물에서 노니는 이곳 여울목에 발을 잠그고있느라면 흘러가버린 유년시절의 추억들이 마치도 금시련듯 삼삼히 떠오르곤 했다.

이제 사나흘후에 유진

은 암스레르담의 저택에서 한 교포기자와 만나야 하였다. 요즘에 와서 유진은 그 교포기자에게 자기의 여생이 모두 실려있는 것 같은 심정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그 교포기자의 이름은 최윤걸이라고 하였다. 키가 훗칠하고 낮색이 하얀 그를 유진은 《킹즈》라고 불리우는 차집에서 알게 되었다. 열자리에 앉아도 되겠는가고 친철히 묻는 신사공의 동양인을 유진은 첫눈에 신뢰하게 되었다. 초면의 사나이를 어떻게 신뢰할수 있었을까? 유진은 때때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곤 하였다. 그러나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곤 하였다. 외로운 이민생활을 하면서 벗을 그리던 마음이 그 인상좋은 동양인에게서 혈육같은 그 어떤 느낌을 받았던것은 아니었는지... 식탁에 마주앉아 통성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암스레르담에서 사는 한민족, 조선민족임을 알게 되었을때 그들의 신뢰는 더욱 깊어갔다.